05:00

새벽 다섯 시의 발효실

두 사람이 하는 추리 게임 · 진행자 없음 · 60–90분 · 집 프린터로 A4 14쪽

동네 빵집 「밀과 소금」. 첫 빵이 나오기 한 시간 전, 사장이 발효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오는 7시까지, 두 사람이 먼저 알아내야 한다.

해답(13–14쪽)은 접어서 봉해 두고, 답안지를 다 쓰기 전에는 열지 마세요.

규칙

준비

- 인물 책 A(서윤) · B(도현)를 한 권씩 나눠 갖는다. 남의 책은 끝날 때까지 펼치지 않는다.
- 단서 카드 12장을 자르는 선대로 잘라 장소별로 엎어 둔다(발효실 · 작업장 · 창고와 뒷문 · 사무실, 장소마다 3장).
- 해답 쪽은 접어서 봉해 둔다. 답안지를 다 쓰기 전에는 열지 않는다.

두 사람 다 범인이 아니다. 범인은 주변 인물 셋 가운데 하나다. 대신 두 사람에게는 저마다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다.

진행

1. 도입(3쪽)을 소리 내어 같이 읽는다. (5분)
2. 각자 자기 인물 책을 혼자 읽는다. (10분)
3. 주변 인물 진술(8–9쪽)을 같이 읽는다. (10분)
4. **조사 두 바퀴.** 한 바퀴에 한 사람이 장소 하나씩 고른다(같은 곳은 못 고른다). 고른 장소의 카드 3장을 뒤집어 **소리 내어 그대로** 읽는다. 두 바퀴가 끝나면 네 곳이 다 열린다. (20분)
5. 이야기 나누기. 인물 책에 적힌 것은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단서 카드를 거짓으로 읽는 것만 안 된다.** 인물 책 내용은 말할 때 숨기거나 둘러대도 된다. (20–30분)
6. 답안지를 같이 쓰고 해답을 연다.

점수

- 같이 받는 점수: 범인 3 · 흉기 1 · 범행 시각(분 단위 3분 안쪽) 1 · 동기 1. 최대 6점.
- 혼자 받는 점수: 자기 비밀을 끝까지 안 들키면 2 · 상대 비밀을 답안지에 맞게 쓰면 1.
- 같이 받는 점수가 4점 아래면 혼자 받는 점수는 반으로 친다. 비밀을 지키느라 사건을 놓치면 손해다.

공통 도입

10월 23일 목요일, 새벽 5시 40분.

「밀과 소금」은 골목 안쪽의 작은 빵집이다. 사장 한정우(58)는 서른 해째 새벽 3시 반에 나와 직접 반죽을 만졌다.

5시 35분, 반죽기 앞에 있던 조카 강민재가 두 사람에게 말했다. 「크루아상 다 부풀었나 좀 봐 줄래요? 손이 반죽투성이라서.」

수습 제빵사 서윤과 밀가루 납품 기사 도현이 같이 발효실 문을 열었다. 27도로 맞춰 둔 습한 방 안, 선반 사이 바닥에 한정우가 엎드려 있었다. 뒤통수에 둥근 상처가 있었고, 숨은 없었다.

민재가 112 에 신고했다. 경찰은 7시쯤 온다고 했다.

골목 입구 CCTV 로 보면 새벽 3시부터 5시 40분까지 이 빵집에 드나든 사람은 아래 다섯뿐이다. 빵집 안에 있던 사람은 넷이다. 서윤, 도현, 민재, 그리고 5시 30분에 과일 상자를 들고 들어온 사장의 아내 한미경. 새벽 4시 반쯤 뒷문으로 다녀간 옛 동업자 오태식도 골목 끝 편의점에서 불려 왔다.

빵집 생김새

- 뒷문 → 창고(밀가루 포대 · 개수대) → 작업장(반죽기 · 작업대 · 오래된 접시저울) → 앞 매장.
- 작업장 한쪽에 발효실 문, 그 맞은편에 사무실. 사무실 창으로 발효실 문이 보인다.
- 사무실 옆문은 탈의실로 이어진다.
- 앞 매장 셔터는 5시 30분 전에는 내려 있다. 뒷문은 열쇠 없이 안에서 열린다.

경찰이 오기까지 한 시간 남짓. 누가, 언제, 무엇으로, 왜 그랬는가.

이 이야기의 가게 · 사람 · 사건은 모두 지어낸 것입니다.

맛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물 책 둘 · 주변 인물 진술 · 단서 카드 12장 · 답안지 · 해답이 든 전체 판(A4 14쪽)은 dt-mystery.portfolio-tracker.workers.dev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